

## 補綴과 Perio의 聯關性

延世大

金 樂 熙

Periodontal disease(齒牙周圍組織疾患)의 治療面에 있어서 가장 重要的 것은 이의 治療와 이 治療된 健康한 組織으로 長期間 維持하는데 있다. 또한 이 治療와 維持面에 있어서 重要的 것은 Periodontium(周圍組織)을 基礎로서 이의 咬合을 重要視하여야하며 이 均衡된 咬合이 되어 있어야만 咀嚼을 充分히 하게 되고 이 咀嚼力이 周圍組織에 適切な stimulation(刺戟)을 주게 된다. 이 stimulation이 있어야만 周圍組織은 均衡을 잃지않고 이의 解剖學的形態와 機能을 發揮할 수 있게 된다. 咬合이란 이러한 重要性을 가지고 臨床的인 面에 있어서 齒槽骨의 吸收狀態와 直接的으로 連結性을 가지게 된다.

不正咬合이 있을 때, 또는 齒牙의 動搖度가 있을때나 或은 齒牙의 移

動이 基할때에는 咬合調整만으로는 治療가 不可能할 때 이것을 治療하기 爲해서 補綴로서 splint하여 自然齒牙를 保存하게 된다. 卽 이것은 齒冠의 一部分이 缺損된 것도 아니고 或은 一個의 齒牙가 拔齒된 境遇도 아닌때에 crown이나 或은 Bridge로서 周圍組織에 疾患이 甚한 境遇 이것을 補綴物로서 補綴하는 것이다. 이것을 Goldman은 Periodontal Prosthesis(齒牙周圍組織的補綴)이라 稱한다.

咬合關係와 周圍組織疾患自體의 進度의 如何에 따라서 補綴의 限界가 決定된다. 이 學術語인 “Periodontal Prosthesis”란 것은 어디까지나 周圍組織疾患을 治療하는 여러가지 方法中의 하나의 方法이며 決코 이 Periodontal Prosthesis만으로 모든 症狀의 治療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是 簡單한 齒冠缺損部의 恢復 Fixed Partial Prosthesis, Removable Partial Prosthesis, multiple splinting 및 矯正 등이 適應症에 依해서 決定되는 것이다. 然이나 齒科醫師로서 가장 重要하고 緊急한 課業이란 것은 自然齒牙를 可能한 限의 모든 方法으로서 이를 保存함에 있는것이다. 이 Periodontal Prosthesis란

것도 이 목적을 위해서 준비되고 실천되는 것이다. 周圍組織疾患을治療함에 있어서 要求되는 補綴物을 함에 있어서는 먼저 이 病에 對한 正確한 診斷이 必要로 하게되는 것이다. 이 正確한 診斷밑에서만 비로서 補綴物의 種類의 決定이나 具體的으로 支台齒의 決定等を 보게 된다. 이미 拔齒된 齒牙의 數가 너무 많다든가 或은 病의 進行이 甚해서 治療가 不可能한 境遇等에는 補綴은 適應이 不될뿐 아니라 拔齒만이 不幸이도 適應된다. 그러나 病의 疾患이 甚하지 않고 診斷의 結果가 좋을 때에 있어서는 補綴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때 注意하여야 할 事項은 Crown의 margin이 齒根緣下에 適合되야 한다는 것과(이때 Normal한 Sulcus의 깊이 1.8mm~2mm를 넘어서는 不된다) 齒牙의 位置가 正常化하야 한다는 것과 咬合面의 幅 그리고 齒冠과 齒根의 길이의 對照를 有利하게 形成해야 하며 隣接面의 形態를 解剖學的形態로 恢復시키며 同時에 齒牙의 動搖度를 防止하고 나아가서 咀嚼機能을 擔當하는데 支障을 없이해야 함이 重要な 骨子가 된다. 以上の 諸般事項을 留意해야 함과 同時에 Esthetic(審美的) 面도 잘 考慮해야 한다. 以上을 綜合하여 본다면은 Periodontal Prosthesis에 있어서는 먼저 齒牙의 動搖度를

除去하여 이를 堅固히 하는 것과 다음에는 齒冠의 形態를 再生(解剖學的 形態)하는 것이다. 勿論 이 再生은 어디까지나 生理學的 形態이어야 하며 頰側, 舌側, 隣接面等도 考慮해야 한다. 이러한 諸般條件을 얼마나 具備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治療의 成功과 失敗가 決定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周圍組織에 對한 基礎的인 知識이 必要한 同時에 어디까지나 臨床的인 面과 直接連關性을 가진 이 Periodontal Prosthesis를 一般 開業醫도 勿論이러니와 補綴 專問醫, 周圍組織疾患 專問醫 들에게 있어서 큰 研究 課題이며 앞으로의 發展에 많이 期待되는 바이다.

以上은 Periodontal Prosthesis에 對한 概念의 說明과 이에 따르는 諸般事項으로 記述했다고 본다. 然이나 臨床에 있어서는 原理와 原則을 無視한 補綴物을 많이 보게 되며 이런 Case에 있어서는 꼭 Periodontal Disease를 보게 된다. 이 病의 重輕은 病의 duration와 病因에 依해서 決定되는 것인데 이 病의 直接的原因은 補綴物이 되는 것이 틀림없다. 卽 Initiating Factor가 된다. 이 齒牙의 周圍組織疾患에는 여러가지의 原因이 숨쳐서 症狀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 病因論에

는 miller의 分類에 依하면 技能上의 障害, 刺戟性, 全身的障害로 되어 있는데 이 中에서 補綴物로 因해서 일어나는 症狀은 刺戟性的의 部類에 屬하게 된다. 이 補綴物로 因해서 일어나는 症狀이란 補綴物自體가 不完全하게 適合되어 있는 境遇와 個個의 齒牙에 過重한 壓力이 加해진 때에 일어나는 것이다. 더욱이 여기에는 支台齒의 選擇이 問題가 되는 것이다. 卽 支台齒가 맞은 바의 咀嚼壓을 擔當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支台齒를 維持하고 있는 周圍組織이 좀더 具體的으로 齒槽骨와 齒根膜과 cementum이 咀嚼時에 오는 咬合壓에 引耐될 수 있느냐가 問題된다. 이 根本的인 問題를 齒科醫로서는 가장 銘心해야 할 일인 것으로 안다. 그러면 具體的으로 Restorative work(保存的인 治療)을 하는 境遇 或은 補綴을 하는 境遇에 考慮해야 할 諸般의 條件을 檢討해 보기로 하자.

먼저 Complete한 Oral Examination을 해야 한다. 卽

1. 齒牙의 動搖度(Clinical mobility)
2. 齒槽骨의 分布狀態(Amount of Bone distribution)
3. 殘存齒牙의 位置(Position of remaining teeth)

以上 三個의 條件을 檢討한 후에 모든 保存的 或은 補綴的인 治療方  
針을 樹立해야 한다.

그리고 齒冠 하나를 具體的으로 檢討해 본다면

- 1) 齒冠의 解剖學的 形態의 完全恢復
- 2) 咬合調整이 完成된 咬合面
- 3) 正確한 齒冠의 形態와 輪廓

等이 考慮되어야만 Food impaction이나 Esthetic 한 面에서 充分  
히 患者에게 滿足시킬 수 있는 作品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條件이 究極  
的으로는 齒牙가 맡은 바의 咀嚼機能을 完遂한다는데 큰 目的이 있는

것이다.

補綴物을 製作하는데 있어서 留意해야 하고 特別히 考慮해야 할 일  
이란 것은

1. 咬合面의 頰舌의直徑을 縮小해야 한다.  
(이는 咬合壓을 調節하기 爲해서이다)
2. ?日齒部에 있어서 齒根의 分岐狀態와 이의 維持狀態
3. 齒槽骨의 分布狀態의 檢討
4. 患者自身の 協力的인 態度
5. 支台齒數의 決定
6. 齒牙의 配列狀態
7. 隣接面의 豐隆도와 壁腔(Embrasure)의 狀態

以上の 諸條件을 考慮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條件을 考慮하면서 끝으로 保存的 或은 補綴的治療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periodontal disease의 治療의 一面이 된다는 것을 認識하면서 齒根組織에 일어나는 諸般炎症과 또한 이로 因해서 齒槽骨의 一部에까지 일어나는 病的狀態의 治療를 行함이 先行되어야 한다는 것을 原則으로 함을 再強調하고 齒科의 治療란 어디까지나 齒科內的 諸般分野가 숨쳐서 비로서 完全한 治療가 된다는 것을 強調하면서 더욱이 periodontist(周圍組織專問醫)와 prosthodontist(補綴專問醫)의 緊急한 連關性이 必要함을 力說하지 않을 수 없다.